

봉준호·송강호도...전주 영화촬영지 각광

작년 한국영화산업 위축에도 64편 영화·영상물 촬영 유치
아외세트장·스튜디오 시설 완벽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잇단 러브콜

클 운영, 영상 콘텐츠 구축 등 지역 영상산업 기반 조성
아울러 올해는 전주 영화인들에게 장편 영화제작의 기회를 주는 '지역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이외에도 전주시민들이 문화가 있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지역영상문화지원 사업으로 전주 영상관련 동아리 지원사업인 '전주 영상콘텐츠 구축' 사업도 전개한다.

영상위원회는 지역의 영화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영상 문화사업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원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가 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시와 (사)전주영상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한국영화산업 위축에도 총 64편의 영화·영상물 촬영을 유지했다. 올해 기대작으로 꼽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송강호 주연의 '나랏말싸미'가 최근 전주에서 촬영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극장가를 좁비로 물들인 '창궐' 등이 전주에서 촬영됐다. 또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이자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올해는 이선균·설경구 주연의 영화 '김메이커'가 전주 로케이션을 타진하는 등 수많은 영화인이 촬영을 위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튜디오와 아외세트장을 갖춘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경우 올해 이병헌·이성민 주연의 '남산의 부장들'을 포함해 이미 205일 촬영분이 예약되는 등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도 따라 전주영상위는 영화 촬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단편영화 제작 지원과 지역 영화 기획 개발,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시나리오 스



현빈 주연 영화 '창궐' 촬영 장면. 전주영상위원회는 올해도 영화촬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영상위원회 제공>



신안군 신년인사회 "군민 화합·소통, 지역발전 다짐"

신안군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2019년 신년인사회를 열어 지역 변화와 발전을 다짐하고 유관기관 간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위해 마련했다. 신안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치러진 신년인사회에는(사진)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배 신안군 의회 의장 및 의원들, 정광호 전라남도의원, 이용석 목포경찰서장, 우기중 재목신안군항우회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신년덕담, 건배 제의, 친교의 장으로 치러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날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군에서 7개면이 육지화되며 2020년은 입자까지 육지화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비금·도초·하의·신의·장산의 경우 12시까지 야간운행 추진, 천사대교 개통, 세계절 꽃피우는 섬 개발, 흑산공항 개항 등을 통해 신안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40명 시청 등 근무

정읍시가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복지일자리사업과 특화형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되며 정읍시는 올해 총 40명을 선발했다. 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최근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무요령, 복무규정 안내와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후 참여자들은 근무처인 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시

설 등에 배치되어 올해 말까지 복지 및 행정업무 보조, 부서 특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자는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와 월 174만5150원의 보수를 받게 되며, 시간 근무제는 주 5일 1일 4시간 근무와 월 87만2580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며 사업의 확대 시행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2019년 블로그 기자단' 모집

15명 안팎...SNS홍보 강화 관광객 유치 총력
고창군이 SNS홍보강화를 위해 '2019년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인원은 15명 내외다. 블로그 기자단은 고창지역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고창군의 각종 정책, 문화, 생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주제로 블로그 콘텐츠를 작성하게 된다. 또 고창지역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기자들에게는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와 고창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접수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오는 14일까지 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SNS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참신하고 열정적으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홍보해 줄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익산지역 농산물 수출 전년보다 10% 증가

멜론·목이버섯 등 작년 220만달러...양파·수박 첫 수출도
익산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익산시 농산물 수출액은 22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013년 240만 달러 이후 최대 실적이다. 품목별로 홍삼제품(미국), 양파(태국), 수박(일본)이 지난해 첫 수출을 시작했다. 또 주요 수출 품목인 멜론(일본, 홍콩 등), 목이버섯(일본), 파프리카(일본) 등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배(대만, 베트남, 캐나다 등)의 경우 전년 대비 20%포인트 증가했다. 시는 지속적인 수출을 통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미국의 홍삼 수요 증가, 동남아 지역의 한류 열풍 확대 등을 고려한 수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군산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최대 100만원 지원

군산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자금, 기술·경영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고령화되는 농업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독립경영)이 3년 이하

인 농업인으로 오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창업농 신청 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영농정착금은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최대 3년 동안 개인별 80만~1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도로접합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500평씩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8500만원(일시불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